

민통련 회상일기



전 민통련 보도실장 박용수

1984년 경남 진양생·자유실천문인협회 지도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사) 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저서 <우리만 길래서전> <겨레말 갈래 글사전> 등

보도실장은 외롭다. 광장 가득히 모인 집회군중을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면 뒷걸음질을 쳐도 멀찌감치 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백골부대 사이에 틈을 비집어야 한다.

누가 방해할지 어떤 놈이 카메라를 낚아챌지 불안하다.

친구 한 사람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는데….

1984년 9월 30일 흐릿한 구름에 놀이 물들다

해거름 때.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자실)가 농성을 벌인다가에 어슬렁어슬렁 기독교회관 쪽으로 올라
가니 평론가 김병걸 선생이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고 선다.

“박형 우리 국민회의에 들어가 싸웁시다!”

‘참 성질 급하기도 하구나. 덮어놓고 싸우자니…?’

“김 선생 숨 좀 들립시다. 누구와 어디 들어가 싸운다는 거요?”

“자실이 국민회의에 가맹하려고 그래. 박태순, 이문구, 이호철, 양성우, 남정현, 이기형 등
이 가기로 했으니 박형만 승낙하면 돼요.”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잖은가. 시큰둥해서 농성하러 가겠다고 한사코 다방으로 끈다. 키가 작달막한 이 함경도 사람은 전경 서넛도 감당 못할 만치 당찬 분이지만 그 당찬 기질 덕택에 보안대에서 몸을 버리고 나온 분이다.

다방으로 끌려갈 수밖에.

1984년 10월 19일 햇살이 눈부시더라

결경사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거다.

대학로의 홍사단 강당에는 해지기 전부터 잔치꾼들이 부산을 떠난다. 춤꾼 이애주 교수가 광목 치맛깃에 바람을 싸 몰고 지난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확대개편대회를 여는 날이다. 민문연 굿패들이 부지런을 떠는구나. 홍사단 강당을 무당집 안방처럼 꾸민다.

좁은 강당이 글쟁이, 굿쟁이로 빼곡하다. 굿판이 끝나자 자실이 임원을 개편한다면서 상임대표를 모조리 젊은이로 채운다. 박태순, 이문구, 양성우, 황석영, 조태일 또래들.

개편대회가 끝나고 바야흐로 춤판이며 굿판이 벌어지려는 참에 평론가 김종철 씨가 허리를 꺾고 지른다. 나가잔다.

참 그렇지 또 잔치가 있다는 걸 깜빡 잊고 굿판에 정신이 팔렸구나. 김종철을 따라 밖으로 나오니 역시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임채정 씨가 택시를 잡아놓고 손을 흔들어 부른다.

이날 일이 겹치지 않도록 자실 행사를 오후 5시로 당기고 민주언론협의회(언협) 창립을 7시로 늦추었다. 12월이라 밤 7시는 한밤중이다. 한밤중에 사람이 모여든다. 피정의 집 집주인 격인 김종필 신부님과 김병조 수사님이 문 앞에 서서 손님을 맞아들인다. 바쁘시구나.

부리나케 단상으로 달려간 김종철 씨가 사회를 맡고 송건호 선생을 언협 의장으로 뽑는다. 대표위원이라며 송건호, 김인한, 최장학, 김태홍, 김승균 씨를 단상으로 불러내자 모두들 손뼉을 치고 나는 플래시를 팡팡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다.

1985년 3월 29일 잿빛 구름에 덮인 하늘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를 하나로 묶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민통련을 대표할 의장에 문익환 목사를 모시고 부의장 직책은 계훈제(민주통일국민회의) 선생님과 김승훈(민중운동협의회) 신부님께 맡겼다. 자실에서 파견한 아홉 중

양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 나는 민통련의 일거수일투족이 귀중한 역사자료임을 깨닫고 내가 지닌 사진기능을 다 바쳐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카메라를 메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니 기관원들이 때 없이 카메라 끈을 낚아챈다. 카메라 끈처럼 질긴 끈이 또 어디 있을까. 한번 낚아채면 필름을 뺏기까지 놔주지 않는다.

“끈 없는 카메라를 구해야지, 끈 없는 카메라를 구해야지.”

이창복 사무처장에게 카메라 하나 사달라니까 사람 좋은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예라, 모르겠다. 사진을 넣은 명함을 찍고 보도실장이라는 완장을 큼직하게 만들어 팔뚝에 낀다. 잡으려면 실컷 잡아보라고.

1985년 4월 4일 봄날 치고 무던히 해마다

보도실장은 외롭다. 광장 가득히 모인 집회군중을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면 뒷걸음질을 쳐도 멀찌감치 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백골부대 사이에 틈을 비집어야 한다. 누가 방해할지 어떤 놈이 카메라를 낚아챌지 불안하다. 친구 한 사람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는데….

힘이 되어 줄 친구, 이 살벌한 기관원들과 가슴을 맞부딪칠 친구… 그래서 찾아갔던 곳은 장위동성당이였다. 친구가 되어 줄 이는 예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살집 좋은 염수정 신부는 도타운 손으로 악수를 해 주며 담배를 권한다. 종교라면 술담배를 첫째 금기로 치는 줄 알았던 나에겐 큰 놀람이다. 사제관 찬장은 온통 양주병으로 가득하다. 주당에겐 더 없는 반가움일 수밖에.

세례명을 『하상 바오로』

대부는 몇 분께 부탁했지만 모두들 고만고만한 핑계가 있어 장위성당 신협이사장 유○○○○(오래 전이라 이름이 생각 나지 않는다.)씨를 모셨다. 장위성당 지하는 텅 비었다. 장기포 정책위원장이 축하객으로 텅 빈 세례장을 오뎅 지키고 있다.

머리를 적시는 물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더라.

1985년 4월 19일 무덤이 그림도록 햇살 포근하다

같이 가던 가톨릭 노동사목 윤수산나 수녀가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며 걸음을 멈추고 암소 눈을 뚫어거리며 두리번거린다. 묘역 입구 나무그늘 아래서 낯선 서양 사람이 손을 들어

보이는데 저 분인가.

“이스라엘 신부님인데 예수 직계라고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예수 직계라?”

“예수의 혈족이라는 거지.”

나, 복 많구나. 아닌데서 예수 후예를 만나다니…!

예수 직계후손 신부님을 모시고 4·19묘역을 두른다. 서양말을 잘 한다는 윤수산나 수녀가 묘지의 내력을 설명하느라 봄 햇살이 지지분하도록 침을 통기는데, 예수 직계후손 신부는 연신 고개를 주억거릴 뿐이다. 묘지를 한 바퀴 돌고 나오니 광장은 학생들로 가득하다. 이번에는 내가 좀 바빠질 차례구나.

카메라 가득 광장을 채우려고 맨 뒤 대문쪽 문설주에 올라가는데 그때야 펼침막을 들고 물려드는 학생들이 있다. 한남동에서 걸어온 단국대 학생들 - 4·19행사가 끝나고 행진에 들어가는데 뒤돌아 걷게 되니 맨 꿈무늬가 맨 앞장을 선다. 그렇게 해서 맨 꿈무늬에 섰던 단국대생들이 4·19기념시위의 앞장이 되고 수만 학생을 거느리고 앞장 선 단국대 학생들을 나는 당연히 행사장면으로 촬영했는데 1년 뒤 일이지만 이날 사진이 1986년 4·19기념식 선전전단의 사진으로 쓰여 내가 검찰에 송치된 첫날부터 검사와 입시를 붙었으니 1년이란 세월의 덧없음이어.

검사 “이 전단사진 당신이 찍은 것이렐다?”

용수 “이보시오, 검사양반. 이 전단은 금년 4·19행사를 알리는 전단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금년에 뿌릴 전단사진을 가불해 찍는단 말시오?”

검사 (금년에 쓴 전단이니 그렇기도 하구나.) “그럼 이 사진 당신이 안 찍고 누가 찍은 거요?”

용수 “찍은 사람 찾아 물어보소. 요즘 세상에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오?” (애매한 이런 사진을 증거물로 송치하다… 경찰 놈들 답답하구나.)

검사 “에잉! 이런 걸 증거로 가져오다니.”

1986년도 4·19기념행사 전단은 증거력을 잃고 휴지통에 구겨 박질린다. 미안구나. 사진이 잘되었다고 선전전단지 사진으로 쓰인 귀한 역사자료이건만 이제 와서는 나를 국보법으로 구속시킨 증거물로 악용되다니 헛되고 헛됨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함인가. 내가 찍었지만 오늘은 불리한 증거력을 갖기에 시치미를 떼고 관시할 수밖에. 미안한 일이다.

1986년 11월 8일 가을 햇살이 따듯하다

모두들 부지런히 드나들던 데라 나도 언젠가는 발걸음을 하고 말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알궁둥이를 까고 잉걸볼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가는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기도 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그 허여벌쭉하고 아득히 높기만 하던 담장 집을 다녀온 지 대엿새 쫘 지난 어느 날.

기관원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던 성유보 사무처장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들어와 봉투 하나를 획 던진다. 펴보니

발송: 1986년 11월 8일

발신: 중부경찰서장

수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제목: 사무실 폐쇄 명령

‘명령’ 이라?

내가 고시 공부해서 관검사 될 꿈은 젓 떨어지고 난 뒤부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잔살백이기에 헌법 책 같은 걸 뒤적거리는 짓은 안했지만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은 있어 민주국가에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시민’ 이라며 이따금씩 민주먹으로 하늘을 찌르기도 하는 터에 ‘사무실 폐쇄 명령’ 이라니 도무지 똥똥지같은 소리구나. 어느 나라에서 날아온 우편물일까...

이 일이 있고 나서 10여년이 훨씬 지난 뒷날이지만, 봉천동 ‘만남의 집’ 어르신들의 어진 눈길에 솔깃해져서 이따금 찾아가던 때, 김석현 선생이 이런 말을 하기에 고개를 끄떡거린 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대학 2학년만 되면 모두 사회주의가 옳다고 믿게 되는데 왜 말법인 국가보안법이 자유로운 사상을 잡아 가두느냐?” 거슬러 올라서 10년, 앞뒤가 도무지 짝이 맞지 않지만 폐쇄명령이 떨어진 날을 되생각하면 김석현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까닭은 뭘까?

그 무렵 민통련 본부 요원은 150%가 구속 아니면 수배여서 이때는 싸울 사람부터 없었다. 사무실을 지키던 사람들은 석방된 지 며칠이 안 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후임들. 우리는 힘이 달렸지만 싸울 수밖에 없어 여기저기에 전통을 띄워 사람을 모았다.

민통련의 조직상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탈이 나서 자리가 비면 가맹단체를 두루 살펴 후임자를 모셔온다. 그러나 기관원들은 이들 후임자에게 전임지의 활동을 구실로 썩위 구속 시키곤 해서 150%라는 숫자가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여 주었다.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던 계훈제 부의장과 박용수 보도실장, 그리고 지난 밤 석방되어 첫 출근한 오대영 인권국장은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입장이었고 농성투쟁은 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성유보 사무처장과 김정환 대변인이 가맹단체 회원들을 불러 모아 확성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싸움이라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농성이라는 것도 그렇다. 민주시민이 뜻을 모아 이 뜻을 받아달라는, 극히 평화로운 의사 표시가 농성인 터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식의 독재 국가에서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짓밟기 예사겠지만 시민이 투표하여 일꾼으로 뽑혀 나간 사람은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우이기도 하겠는데 이 시절에는 코흘리개도 알아들을 이런 경우가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

농성이라는 것을 사흘째 잊고 있던 11월 12일 오밤중에 갑자기 창문으로 강한 불빛이 쏟아져 들었다. 농성장 옆방이 마침 비어있어서 계훈제, 오대영, 그리고 이들 동안 날밤 새우기를 한 김정남이며 몇몇 숙편한 회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가 놀래어 창으로 내다보니 민통련으로 건너오는 육교 위에서 방송국 기자들이 조명등을 비춰 민통련 건물을 찍고 있고 그 불빛을 받고 반들반들 빛이 나는 경찰 모자들이 수없이 민통련으로 쏟아져 든다.

“녀석들, 잘 하는 짓이다!”

농성장은 이내 난장판이 된다.

사무실의 그 튼튼한 잠금쇠를 용접기로 뜯어내고 쇠뭉치를 휘둘러 문짝을 종잇장처럼 구겨놓는다. 농성장을 지키던 성유보 사무처장, 보도실장 박용수, 언협에서 온 김인한 선생, 민미협에서 온 원동석 교수를 눈을 가린 채 남영동 대공 분실로 끌고 간다. 서쪽에서 해가 떠오르기까지 날밤 새우며 조사라는 걸 벌인다. 눈을 가리고 요리조리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몇 층인지 모를 붉은 방으로 끌어들인다. 이 조사실은 언제나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이 방향 감각을 무디게 만들더라.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온 높은 담집 어둑한 그늘 길을 어정거리며 지나자니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김정환 대변인이 와락 맹꽂이처럼 포옹한다.

“너 언제 들어왔나?”

“박 선생이 끌려가고 난 다음날인 10월 13일 명동성당에서 편 ‘민통련 사수농성’ 주동자로 잡혀 들어왔지롱.”

젊은 시인 강태형이 증언하듯이
나의 노래, 십팔번은 울밑에 선 봉숭아

내 나이 열 살쯤 되어서였지
왜정시대 군가 불러 여린 목청 티우던
어느 해 늦가을 해거름 무렵
중학교 5학년이던 나의 형
동생이라고 배워 준 노래 하나
울밑에 선 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어찌하여 '불순한' 이런 노래를
철부지 아우더러 부르라 시켰을까
어찌라고 내 것에 귀 뜨이게 하여
한 평생을 봉숭아로 살아가게 만들었나
형아, 형아, 못난이 나의 형아

과수원 등성이 과일나무 밑에서
물 아래 징벌 뒷산 저녁놀 타는
그 하늘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봉숭아야, 봉숭아야, 서러운 나의 노래

어언간에 겨울 가고 해방은 되었지만
십년 살고, 십년 살고, 이어 이어 거듭 십년
젊음 하나 남김없이 한 누리를 살았어도
봉숭아야 네 모습은 오늘도 처량하다

어두운 울밑조차 벗어 날 수 없으니
어디라 길 찾아 떠나기를 바라겠나
키 크기 방패를 빈쩍거리며
군복 입은 아이들이 길목마다 늘어서서
울타리 겹겹 치고 그 밑에서 살라 한다

싫다니 뉘아채고 군화발로 짓밟는다
온몸이 시커멓게 피멍이 들도록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찜질
아픔 보다 설움으로 몸 비비꼬며
봉숭아야, 봉숭아야, 봉숭아를 부른다

언제 한 때
이 땅에도 별살 환히 퍼질까
햇살 같은 밝은 세상 아니더라도
숨 한 번 시원히 쉴 수나 있었으면
노래 한번 후련하게 부를 수나 있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없이
머리 위를 하얗게 쏟아져 덮는
사과탄, 총류탄, 온갖 지랄탄
봉숭아야 꽃 한 송이 지켜 살기에
아린 눈 타는 듯 눈물만 흐르구나

이 겨울은 그나마 내 자취마저
이 땅에서 쓸어내듯, 없애버리듯
온 몸뚱이 퐁퐁 묶어 감옥 속에 던지구나
현저동 101번지 그 높은 울타리 안
겨울바람 스산히 굴러가는 이런 밤은
시찰구에 얼굴 막고 봉숭아를 부른다

봉숭아야
봉숭아야
아, 나의 노래
화창한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자